

청소년 마약 예방, 교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

- 관세인재개발원, 6개교 140여명 참여한 체험형 교육 성료 ... 미래세대 마약 위험 경각심 높여

□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(천안시 병천면 소재)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.

※ ('24.9 ~ '25.9) 개포중학교 등 서울 소재 총 6개교, 140여 명 참여

○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*이 증가하는 가운데,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.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**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.

* 검찰청 '24.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체 23,022명 중 649명으로 2.8% 차지, 18세 미만 마약사범도 411명으로 1.8% 해당

** 관세행정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및 관세청 홍보(마약 찾기 체험 등 진행)

□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.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임 활동과 함께 마약 중독의 부작용을 설명하여, 청소년들이 보다 생생하게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.

□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“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약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험형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”이라며, “더 나아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 콘텐츠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.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 현장 사진

담당 부서	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인순 (041-410-8530)
		담당자	주 무	임현정 (041-410-8543)

붙임

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 현장 사진

